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은 19일 현재 10골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공동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손흥민은 2016-2017시즌부터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하며 EPL을 대표하는 골텐더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득점력과 함께 손흥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경기력 통계도 선보였습니다. 상대에 대한 압박감을 주는 수비입니다.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 풋볼 옵서버는 '유럽 5대 리그 센터 포워드(프론트 스트라이커)의 압박 수비'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최소 720분 이상 활약한 공격수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손흥민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 히살리송이 시즌 초반 부진한 가운데 올 시즌 원톱으로 활약했습니다.

손흥민은 90분당 16.2골을 넣으며 13.1골을 기록한 준우승자 막시밀리안 바이엘(호펜하임)을 제치고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유일한 공격수이기도 합니다. 이는 손흥민이 많은 골을 넣으며 전방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수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센터 포워드는 다른 포지션에 비해 수비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고 수비를 하더라도 압박감이 적습니다. 공격수들이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현대 축구의 트렌드이지만, 상대 골문을 뚫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인 배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득점왕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 21골)은 90분당 3개의 압축 수비를, 프랑스 리그 1 득점왕 킬리안 음바페(생제르맹, 18골)는 90분당 3.3개의 압축 수비를 기록 중입니다. 두 골 모두 손흥민의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리그 득점 4위인 로멜루 루카쿠(AS로마, 7골)는 90분당 1.6개의 압축 수비를 기록하며 손흥민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바카라 게임](#)

이번 시즌 EPL에서 손흥민은 미드필더와 수비수를 포함한 모든 포지션에서 누르는 횟수로 6위(331회)를 차지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지난 10월에는 상대 압박 시 스프린트 거리 1,314미터를 기록해 EPL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치는 그가 공이 없는 오프더볼에서도 강력한 선수임을 보여줍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의 스프린트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는 EPL에서 그 어떤 선수보다 많은 활약을 펼쳐 상대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양주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의 오프더볼 움직임을 높이 평가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어디에 있든 팀을 위해 정말 열심히 달린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팬들로부터 토트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